

■ 공원 탐방

⑥ 쌍암공원



우레탄길 옆 잔디밭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생들.

■ 도시제안



양도식

세계화·지방화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면 도시는 이 현상의 최전선에 있다.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는 등식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이런 현실 속에서 도시는 정책 입안자와 결정자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가 '창조도시'를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삼은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역사적으로 기술혁명, 지식혁명, 문화혁명, 경제혁명의 발원지였던 도시는 창조적인 본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혁신의 원동력이 된 인적자원이 집중된 곳도 도시이다. 인적자원이 성장의 동력인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창조도시 전략은 미래지향적 도시정책임은 틀림없다. 먼저 창조도시의 시작은 상징적 시설과 이벤트 투자에 앞서 '인간자본'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창조도시의 원동력은 창조성을 창출하고 향유할 수 있는 '창조자본'(creative capital)을 가진 사람들의 흐름과 움직임에 있다.

미래지향 비전·전략 마련
민관기업 '창조역량' 집적
광주만의 창조도시 만들자

그러므로 이들 창조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들의 창조성과 지식 그리고 경험을 도시 내에서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창조도시의 결과의 벤치마킹보다는 '과정의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도시조성의 경험이 부족한 우리의 경우에는 선진국의 사례를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서구의 창조도시 조성 '과정'의 고찰을 통해 단순한 외국사례의 모방을 넘어 우리의 물리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는 정말 '창의적인' 창조도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의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창조도시 전략을 위해서는 창조도시의 '조성과정'에 중점을 둔 선진국 사례의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성공적 창조도시 전략은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의 '창조역량'을 넘지 못한다. 이 말은 정책입안자는 창조도시에 대한 관심은 물론 관련 학계, 산업,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연계를 통한 최대한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지난 10년 간 성공적인 창조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셰필드 시는 지역기업 그리고 여러 지자체가 함께 협력 하에서 '창조적인 셰필드'(Creative Sheffield)라는 도시재생회사의 설립을 통해, 창조적 역량을 집적한 점은 바로 정책 입안자와 결정자들의 창조역량을 높인 좋은 예이다. 마지막으로 창조도시의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경우 시장과 단체장들은 임기 내에 가시적인 결과를 통해서 창조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과신이 팽배되어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영국 정부의 성공적인 창조도시들은 하나 같이 10년 20년의 단계적이고 상세한 비전과 전략을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구체화했다. 동시에 이 마스터플랜을 통해 선택과 집중의 고도의 전략을 창조도시에 적용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영국도시건축연구소 URBANPLASMA 소장>

이웃들 웃음소리 넘치는 '동네 사랑방'



광산구 쌍암공원 인근 우레탄길을 가정주부, 직장인 등 인근 주민들이 걷고 있다.

혹시 어린이가 없는 공원을 상상해본 적이 있는 지. 해맑게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없는 공원은 삭막하기 그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공원'뿐 아니라 도심 내 공원은 모두 '어린이의 눈'에 맞춰 조성돼야 하며, 그러한 노력은 곧 부모와 조부모, 즉 어른들을 불러모을 것이다. 어린이는 눈높이 맞춘 전천후 공원 중심의 저수지를 주변으로 우레탄 산책로가 갖춰진 쌍암공원 주변에는 운동장과 잔디밭이 넓게 펼쳐져 있다. 다소 부족한 듯하지만 미끄럼틀이나 시소, 그네, 철봉 등도 공원 한 쪽을 차지하고 있으며, 탐과 조형물이 있는 광장도 있다. 공원 입구에서 왼쪽으로 정자와 벤치가 가지런히 늘어서 있어 가정주부, 인근 병원 환자, 할아버지·할머니들의 휴식처가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공원 내에 있어야 할 것들은 모두 갖춘 전천후 공원이라는 의미다. 지난달 초 본격적인 여름 날씨에 접어들 공원은 뜨거운 햇살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어린이들이 가지가지 놀이를 하며 즐기고 있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내 좁은 장소에서의 갑갑함을 느꼈던 어린이들은 축구공을 굴리며, 이쪽 끝에서 저쪽 끝대로 오갔다. 넘어지더라도 곧 일어나 먼지를 털어

내고 공이 있는 쪽으로 달려가는 어린이 뒤에는 유치원 선생님이 응원의 목소리를 높였다. 넘어졌다고 해서 바로 도와주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그렇게 안 될 경우만 간섭하는 일정한 원칙이 있는 듯했다. 축구장 뒤편에 있는 놀이터에도 어린이들이 넘쳐났다. 축구장에서 노는 어린이보다 나이가 어린 3~5세 유아들이었다. 이들은 2명의 선생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끄럼틀이나 그네를 즐겼다. 북구 신용동에 있는 다사랑어린이집 유선희(39) 교사는 "어린이집 차로 매달 1번씩은 나오고 있다"며 "휴를 만질 수 있고, 맑은 공기도 좋아 어린이들이 나가자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시골벽직한 놀이터 저쪽으로 펼쳐지는 잔디밭에서 다른 어린이집 아이들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고 있었다. 솔레 어린이 주위로 20여 명의 아이들이 몰려들었다가 한꺼번에 흩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던 어른들도 흐뭇한 듯 구경했다. 산책로를 걷던 유모(43)씨는 "점심을 먹고 나른한 기분엔 사무실을 나와 공원을 거닐고 있다"며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10분 정도 보고 있으면 기분까지 좋아진다"고 말했다. 우레탄 산책로는 낯스런 집안일을 잠시 미루고 운동을 나온 가정주부, 주변 사무실 직원, 병원 환자 등 10여 명이 걸거나 뛰고 있었다. 저수지 주위

에 나무가 식재돼 자연스럽게 뜨거운 햇살을 피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가정주부인 심모(37)씨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에 오기 전인 오후 1시부터 3시까지가 유일한 나의 시간"이라며 "같은 아파트 언니와 함께 매일 1시간씩 운동하는 데 이만한 곳이 없다"고 공원을 애찬론을 폈다. 주변 아파트·동네 주민 놀이터 산책로가 끝나는 지점에는 정자와 벤치가 가지런히 놓여 있으며, 이곳은 동네 사랑방의 역할을 하고 있다. 김현수(82) 할아버지는 "자녀와 떨어져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 오전과 오후 하루 두 번씩 이 공원에 나와 사람 구경을 한다"며 "간혹 같은 동네 노인들이 막걸리를 사오면 들이키는 재미도 있다"고 말했다. 쌍암공원은 완전히 주변 아파트 및 동네와 하나가 되고 있다. 각각각색의 사람들이 공원을 채우고, 공원으로 인해 즐거움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름밤 공원을 찾는 사람들로 쓰레기가 급증하고, 공원 밖에 쓰레기봉투가 즐비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공원의 중요함을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는 만큼 문제점의 개선도 곧 가능할 것이다. /원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2010 Gwangju VENICE GLASS FANTASIA 2010. 6. 19(토) - 8. 22(월) 광주문화예술회관 전시관(구 광주시립미술관) ... [Advertisement for a glass art exhibition featuring various glass sculptures and a colorful horse sculpture.]